

Location

일본의 거의 중앙에 위치한 효고현. 철도, 고속도로, 항만, 공항 등 뛰어난 교통 접근성을 자랑하며, 일본 내 주요 도시까지 2시간대로 접근이 가능한 것은 물론 세계 각국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효고



HYOGO GO in JAPAN

효고현 산업노동부 국제과
TEL : +81-(0)78-362-3026
Email : kokusaika@pref.hyogo.lg.jp

효고현
홈페이지



다국어판
팸플릿





5개 지역

효고현은 풍토와 기후를 비롯해 일본 전국의 다양한 지역적 특색을 지니고 있어 '일본의 축소판'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설치:

1868년

인구 (2025.12.1기준):

5,304,127명

싱가포르와 동일 규모

면적 (2025.12.1기준):

8,400.82km²

자메이카와 동일 규모

현재 총생산 (2023.3.31기준):

\$ 171,281 million*

*1 US Dollar = 131 Japanese yen

헝가리와 동일 규모

외국·외국계 기업의 현재 입지 수 (2025.3.31기준):

82개 사 ※ **전 4**위

현재 기업의 해외진출건수 (2025.3.31기준):

996건 ※ **전 5**위

※효고현 국제과 조사

현 깃발



현목: 녹나무



현화: 백아국



현조: 황새



Keywords & Numbers to Understand Hyogo Prefecture



자세한 내용



효고현
공식 관광 가이드

효고현
관광 PR영상

이화학연구소 제공



고베신문사 제공



04 국제교류

효고현은 1868년 고베 개항 이후 일본의 국제화를 선도해 왔습니다. 외국인 학교와 외국어 지원이 가능한 병원, 생활 상담기관, 종교시설 등 외국인에게도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현재는 약 160개국, 약 14만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경제교류

국제적인 경제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 '해외 사무소(3개소)'와 '효고 국제 비즈니스 지원 데스크(10개소)'를 설치. 외국 및 외국계 기업의 현내 입지 수, 현내 기업의 해외 진출 건수 모두 국내 최고 수준입니다.



해외사무소

- ① 워싱턴주 (미국)
- ② 파리 (프랑스)
- ③ 홍콩 (중국)

효고 국제 비즈니스 지원 데스크

- A 상하이 (중국)
- B 광저우 (중국)
- C 하노이 (베트남)
- D 호치민 (베트남)
- E 방콕 (태국)
- F 싱가포르
- G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 H 델리 (인도)
- I 뉴욕 (미국)
- J 베를린 (독일)

02 차세대산업

자세한 내용



효고현
외국계 기업
유지 사이트

효고·고베
투자지원센터
PR영상

현대에는 '하리마 과학공원도시'와 '고베 의료산업도시', 슈퍼컴퓨터 '후가쿠'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기반이 입지해 있습니다. 해상공항과 국제전략항만을 보유하고 있는 등 일본 내에서도 손꼽히는 지리적 이점을 살려 차세대 산업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항공기, 로봇, 건강·의료, 환경·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산학관 연계를 통해 국내외를 선도하는 효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실용화를 비롯해 최신 드론 등 차세대 이동수단을 활용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에 힘쓰고 있습니다.

건강·의료

이화학연구소, 대학 등 최첨단 연구기관과 첨단 전문병원 등이 밀집한 고베 의료산업도시. 국산 수술 보조 로봇 'hinotori™'를 비롯해 세계를 변화시킬 혁신적인 의료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소 에너지

'탈탄소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새로운 경제 활력 창출'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 각 지역의 잠재력을 살려 수소를 일상생활과 산업 활동에 활용하는 '수소 사회'를 구축합니다.

각 지역의 잠재력

사람과 기업이 밀집한 대도시권 "고베·한신 지역"

일본·호주 간 액화수소 운반선 실증 실험, 도심 내 100% 수소연료 발전 실증 실험에 성공하는 등 선행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수소 특화 지역입니다.

에너지 산업 등이 결집된 "하리마 입해부"

일본 내 손꼽히는 제조업의 거점으로 발전, 철강, 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이 결집. 히메지항을 중심으로 수소 공급망의 거점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섬 "아와지시마"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 저장, 활용하는 등 에너지의 지산지소 모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진 "다지마·단바 지역"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으로 발전하는 '연료전지(FC)'를 탑재한 관광버스 및 열차를 도입하는 등 관광과 수소를 결합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